

드론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한국군에 던지는 경고와 기회  
차도완(국방대학교 국방AI·로봇학과 교수)

트럼프 2기 한미동맹과 중국, 제주 기동함대의 전략적 함의  
박남태(예)해군대령, 美 조지메이슨대학 겸임교수

## 드론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한국군에 던지는 경고와 기회



차도완(국방대학교 국방AI·로봇학과 교수)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음
- 고가의 드론을 통한 전략적 효과로부터 저비용, 단순임무의 소형 드론을 통한 전투효과가 상당함이 입증되었으며, 드론의 전자전 대응능력, 네트워크 보안 등은 필수과제로 제시되었음
- 오늘날 주요 국가들의 드론 전력 획득전략은 우리 한국군 또한 대량 신속 획득, 소부대 중심의 드론 편제, 드론 대응 시스템 강화, 민간과의 협력 생태계 구성,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 등과 같은 함의를 주고 있음

### 1. 서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 전쟁은 현대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드론이 군사 작전에 미친 영향은 세계 안보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드론은 더 이상 특수부대나 정찰 임무에만 국한된 장비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전장의 전술 환경,

지휘·통제, 심지어 국가 전략까지 바꿔놓을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저가 상용 FPV(First Person View) 드론부터 정밀한 군사용 자폭 드론까지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중무장 병력 중심의 전면전 구도에서, 드론은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과 정보 우위를 동시에 제공하며, 기존의 군사력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비대칭 무기'로 부상하였다. 특히 대규모 기갑전력과 방공망,

그리고 통신체계를 상대로 드론이 어떻게 기민하게 침투하고 새로운 운용방법을 가지고 타격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들은 한국군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본 고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관찰된 드론 운용의 대표적 사례들을 정리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환경과 한국군에 주는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전장에서의 드론 운용 사례 분석

### (1) 터키제 바이라타르 TB2의 전략적 효과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는 터키산 드론인 바이라타르 TB2(Bayraktar TB2)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기갑 행렬과 탄약고, 방공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TB2는 저렴한 가격과 장시간 체공능력, 그리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무장 탑재 기능을 갖춘 중소형 전술 드론이다. 우크라이나군은 TB2를 이용해 러시아의 전방 보급로를 교란하고, 대규모 병력 집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작전 지속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TB2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운용 개념의 혁신'에서 비롯됐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단일 플랫폼이 아닌 '센서 to슈터 체계'의 일부로 통합했고, 다양한 정보자산과 연계하여 다중 타격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우리 군도 드론을 단순 정찰 수단으로 인식하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 (2) 상용 드론의 군사적 전용과 FPV 자폭드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 모두 DJI, Autel 등의 상용 드론을 개조해서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FPV 드론은 고속·고기동성을 기반으로 자폭 임무를 수행하거나, 엄폐물이나 장애물 사이를 통과해 장갑차나 보병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수백 달러 수준의 드론이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은, 드론이 '전술적 불균형'을 조성하는데 있어 탁월한 수단임을 방증한다.

또한 드론에 소형 수류탄이나 고풍탄을 장착하여 참호나 건물 안의 적 병력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은, 한국군이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의 갱도 진지나 도시지역작전 환경에서도 직접 적용 가능한 전술로

평가된다. 상용 드론의 이러한 전용은 향후 비정규군, 테러집단, 심지어 민간 주체에 의한 군사적 위협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 (3) 전자전과 GPS 교란에 대응하는 드론 기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력한 GPS 재밍 및 전자전(EW)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는 GPS 의존도가 낮은 자율 비행, 비가시권 조종, 다중 통신망을 탑재한 드론을 도입하고 있으며, 드론 간 메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밍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광섬유 케이블을 활용한 테더드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 역시 북한의 강력한 GPS 재밍 능력에 직면해 있으며, 만약 유사시 드론이 실제 임무 수행 중 통신 두절 또는 위치 추적 오류를 겪는다면 전술적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론 자체의 자율성, 항법 시스템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사이버·전자전 대응능력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은 필수 과제이다.

## 3. 한국군이 직면한 도전과제

한국군은 이미 드론을 정찰 및 감시 목적으로 일부 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대별로 운용가능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시작전에서 드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1) 지휘통제체계와 드론의 통합 부족

현재 한국군의 지휘통제체계(C4I)는 대부분 유인 전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론이나 무인체계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나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 이는 드론이 제공하는 실시간 영상과 정밀 타격 능력을 군 전력 전체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병목현상을 초래한다.

### (2) 기술 의존성과 국산화의 한계

한국은 현재 DJI 등 외산 상용 드론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군사용 드론 역시 부품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공급망 차단 또는 백도어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 분야에서의 드론 독자 설계와 부품 국산화, 그리고 AI 기반 자율비행 알고리즘 개발이 시급하다.

### (3) 새로운 전투개념의 필요성

드론 중심의 전투는 단순히 병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개념과 부대 편제, 병력 운용 그리고 드론 운용 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특히 드론은 병사들을 중심으로 개인화된 정밀공격 능력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집단화된 전투방식보다 훨씬 유연하고 분산된 작전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을 통해 새로운 싸우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전차를 파괴한 사례는 새로운 전투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나타낸다.

## 4. 주요 국가의 드론 전력 획득 전략

### (1) 미국; 전장 전체를 커버하는 다영역 드론 체계

미국은 드론 전력의 세계적 선두주자다. 미 국방부는 드론을 단순 정찰 자산이 아닌, '전역 수준의 작전 체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드론 MQ-9 리퍼(Reaper)는 테러 대응, 정밀 타격, 정보감시정찰(ISR) 임무에 이미 수천 건 이상 투입되었으며, 최근에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합한 자율비행 드론(Autonomous Drones)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본격화된 Replicator Initiative는 대규모 무인체계를 군에 신속히 조달하기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수천 대의 저비용, 지능형 드론을 '대량·빠른 배치(mass and speed)' 전략 하에 전력화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자폭용, 교란용, 분산식 감시용으로 활용되며, 고가 유인체계의 리스크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2) 영국; 정규군 구조 재편과 드론 통합

영국은 2021년 국방 리뷰에서 'Future Soldier' 프로그램을 통해 군의 구조 자체를 드론 중심의 작전 모델로 개편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보병 전력의 일부를

드론과 로봇시스템으로 대체하며, 소부대 중심의 기동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Watchkeeper 드론, Taranis 스텔스 드론, 그리고 SkySabre 드론 대응체계 개발 등을 통해 드론의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대 단위 이하 부대에 소형 드론 정찰조(Fly Teams)를 배치해 병사 1인당 1대 드론 체계로 발전하고자 하고 있으며, 시가지 및 저고도 작전에 적합한 드론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3) 독일; 방산-민간 협력 모델 중심의 드론 획득

독일은 자체적인 군 드론 개발보다는 이스라엘, 미국 등의 드론 플랫폼을 도입·현지화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Heron TP 드론을 독일 공군용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EU 공동 드론 개발사업(MALE RPAS, Eurodrone)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또한, 독일은 민간 드론 기업과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듀얼 유즈(Dual-Use)' 기반의 민군 겸용 드론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군사작전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듈형 획득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방산업체 Rheinmetall은 드론·로봇 자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 무인전력군 개발을 선언하기도 했다.

## 5. 한국군의 드론 전력 획득 방향

위 사례에서 보듯, 주요 선진국들은 드론 전력을 '기술'이 아닌 '작전 개념(Concept of Operations, CONOPS)'과 '신속한 획득체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군도 이들 전략에서 교훈을 얻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1) "빠른 소량"이 아닌 "대량 신속" 획득체계로 전환

현재 한국군의 드론 획득은 전력화까지 수년이 걸리는 '무기체계 획득 방식'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 미국의 Replicator Initiative처럼 작고 저렴한 그리고 지능을 가진 드론 수만 대를 전시에 대비해 평시부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플랫폼 기반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시에는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임무에 맞게 빠르게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량 신속 획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2) 소부대 중심의 드론-병력 융합 편제

영국처럼 소대·중대 단위 병력이 1~2대의 드론을 필수 운용하도록 전투교리와 부대 편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GOP, 해병대, 특수작전부대 등에 드론 운용 전담병을 배치하여 전장 상황 인식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최적의 편제 설계를 위해 이를 위한 효과도 분석과 소부대의 싸우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 (3) “드론 대응 체계”와 “전자전·재밍 대응력” 동시 구축

드론을 운용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방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레이더 기반 소형 드론 탐지 시스템, 재밍 대응용 자율항법기술, 드론포(Drone Gun)와 같은 방어체계 도입을 병행해야 하며, 전자파가 밀집된 전장에서 임무 지속이 가능한 통신 독립형 드론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 (4) 민간기업과의 협력 생태계 활성화

독일 모델처럼, 민간 드론 기업이 군사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의 요구사항(RFP)을 공개하고 신속 시범사업(Rapid Prototyping)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립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드론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한 ‘군 위탁개발형 과제’ 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도 함께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 (5) 드론 시스템 및 운용에 대한 교육 강화

지금까지 드론 운용은 일반 병과에 부여된 ‘보조 임무’에 가까웠다. 향후에는 드론 전담 부사관/장교 체계를 신설하고, 실전형 훈련체계를 갖춘 드론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는 이론적 내용 뿐만 아니라 시스템 종합 등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기술뿐 아니라, 전술·작전 측면의 운용 능력도 군 내부에서 확보해야 하며 새로운 운용개념을 개발해야 한다.

## 6. 결론

드론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그것은 전장을 인식하고, 지휘하고, 타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축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그 전환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은 그에 대응해 전군 차원의 대규모 저비용, 지능형 드론들의 전력화를 선언했고, 영국은 전통 전력 구조를 과감히 해체하고 재구성 중이다. 독일은 민군 협력 생태계를 기반으로 유연한 드론 획득 전략을 실행 중이다.

한국은 군사적 위협이 고도로 집중된 한반도 상황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드론 전환을 해야 할 나라 중 하나다. 드론을 단순 보급이 아닌, 전투 및 작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춘 조직, 교리, 조달, 교육체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지금 한국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다가온 “드론 전쟁 시대”를 실전처럼 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드론은 위협이지만, 준비된 자에겐 그것이 전장의 지배력이 된다.

**차도완** 교수는 2014년 KAIST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세부 전공:로봇)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방대학교 국방AI/로봇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방로봇학회 총무부회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대전·충청지부 이사 등 로봇 분야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며 로봇, 드론 분야 다양한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 자문 및 기획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지능형 군집 드론 시스템, 지능형 로봇 시스템, 실시간 로봇제어, 유무인 시스템 시뮬레이터 등이다.(chadowan24@gmail.com)

드론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한국군에 던지는 경고와 기회  
차도완(국방대학교 국방AI·로봇학과 교수)

트럼프 2기 한미동맹과 중국, 제주 기동함대의 전략적 함의  
박남태(예)해군대령, 美 조지메이슨대학 겸임교수

## 트럼프 2기 한미동맹과 중국, 제주 해군기동함대의 전략적 함의



박남태(예)해군대령, 美 조지메이슨대학 겸임교수

- 2025년 2월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창설
- 한국은 무역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1989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식화
- 중국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자국 중심의 전략적 관점에서 평가 : 제주도와 제주해역은 중국 수도권과 연결되는 황해(서해)의 관문, 따라서 미국과 연계시 제2의 오키나와 또는 요코스카가 될 것을 우려
- 중국은 기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국내 여론 자국 및 황해(서해)에서 장악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됨
- 세가지 전략적 함의 제시: 제주해역에서 한미 연합 현시활동 증가와 동맹국과 우방국으로 참여 확대, 미국과의 안보분담 차원에서 제주해역 군사적 활동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행, 능력 제고 차원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지원

### 도입

한국해군은 2025년 2월에 제주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발족시켰다. 본 소식은 국내뿐 아니라, 특히 외국(Cha, *Naval News*,

2025.2.14.)과 중국신문도(解放军报, 2025.2.14.) 관심있게 보도하였다. 1989년부터 공식적으로 해군의 전략 기동함대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36년만의 일이다. 먼저 제주 해군기지가 2016년 준공되었고, 여기에 기동함대의 모체인 제7기동전단이 배치되었다. 중국은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단계에서부터 이를 자국안보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제주 해군기동함대가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며, 이를 안보와 국익 제고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작성하였다. 먼저 제주 해군기동함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관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특성과 국방정책을 고려하여 제주 기동함대와 관련된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의 안보인식과 제주 해군기동함대

한국 해군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11일에 타군종에 비해서 일찍 창설되었으며, 초기에는 연안 경비임무에 중점을 두었다.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이 성립된 이후, 해군은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 대에는 한반도의 동해, 서해, 남해를 책임지는 3개 해역함대 체제를 구비하였다. 이때 주요 위협은 북한 해군이였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경제가 성장하면서, 특히 1980년대를 지나면서 무역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국내에서는 해상교통로(SLOCs : Sea Lane of Communications)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동산 원유를 해상을 통해 소송하다 보니, 해상교통로 보호가 국가안보에도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를 보호 할수 있는 함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과에 따라 1989년에 처음으로 한국군은 한반도 남쪽의 제주도에 기동함대의 건설을 장기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0년대부터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지도자들의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서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2016년에 제주 해군기지가 문을 열었다.

한편 2012년 중국은 시진핑주석 집권 이후에 중국몽을 내세웠고, 군사력 굴기를 위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시에 남중국해 등의 해양에서 공세적인 팽창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과 접해있는 황해(서해)에서 중국해군과 공군의 공세적이고 일방적인 확장 활동을 목도하게 되었다. 중국이 황해(서해)를 자국의 주권적 권한이 발휘되도록 내해화를 시도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존의 해양 질서를 부정하고,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변국들에게 강요 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자유롭고 안전한 해양 활동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2017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지정했고,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해양사용의 원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기존 해양질서 주장이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틀을 바탕으로 미국의 인태 전략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중간의 전략적 상황과 인태지역의 상황 변화 중에 제주 기동함대는 더욱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 제주 기동함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평가

중국은 2012년 한참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2012년 당시 중국의 문헌은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두가지로 제시한다(青年参考, 2012.8.29).

첫째는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가치평가이다. 제주도가 중국의 1도련선 북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상하이 북부의 주요 도시들에 접근하는 관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해상과 공중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이다. 두 번째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과 연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을 구사할 때 제주도가 제2의 오키나와 또는 제2의 요코스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 항공모함 등의 전력이 배치된다면, 중국의 해양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저자는 기존 중국의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바탕으로,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추론을 시도한다. 제주 해군기동함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시각은 현실적으로 두가지 구체적

위협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첫째, 수도 베이징의 안보 측면이다. 이는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전통적인 중국의 안보관을 반영한다. 제주도는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황해(서해)의 관문이다. 그리고 산둥성 칭다오시에 사령부를 둔 북해함대의 출입문이기도 하다. 중국이 말하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100년의 치욕의 역사 중에 외국군에 의한 수도 베이징이 점령된 사례가 있다. 1900년 의화단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군함을 이용하여 황해(서해)로 진입, 텐진에 상륙하였고, 결국 수도 베이징까지 진입하였다. 이러한 서구의 군사적압력은 결국 청나라의 몰락으로 귀결 되었다.

두 번째 측면은 현재 뜨거운 감자인 대만문제와 관련된다(Park, *China Brief*, 2022). 중국의 관점에서 제주해역은 대만 군사적 점령을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 중국의 관점에서 대만을 중심으로 사방의 위협을 평가할 때, 대만의 북동쪽 방향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만의 북동쪽 방향이 오키나와 열도를 통해서 일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일본의 자위대와 막강한 주일 미군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해역이 바로 동중국해이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만점령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남중국해 보다는 동중국해에서 미-일 연합전력과 해전 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제주해역은 바로 동중국해의 머리에 위치 해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에 배치된 막강한 해군력은 바로 중국의 대만점령을 위한 군사적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에게 제주해역은 주전장인 동중국해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할 전략적 후방이다. 따라서 만약 제주도에 배치된 해군력이 중국에 적대적이라면, 중국의 대만 군사적 점령 작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제주 해군기지와 기동함대의 전략적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 중국의 예상되는 대응

한국은 국가적 의지와 역량을 집중하여 장기간의 노력 끝에 제주 해군기지를 완성했고, 핵심능력인

기동함대까지 배치하였다.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동 함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현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한미동맹의 틈이 벌어지고, 약화 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해군간의 제주 남방해역에서 연합훈련 등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북한을 활용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국내 단체와 여론을 자극 할 수도 있으며, 특유의 삼전(법률전, 심리전, 여론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황해(서해)와 제주해역에서 중국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의 해군 활동과 해양활동을 더욱 증가 시켜나갈 것이다. 즉, 중국이 평가했듯이 황해(서해)와 제주해역은 제1도련선의 북부의 핵심지역이다. 본 해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해상과 공중의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에 추가하여 어업활동 등 비군사적 활동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중국은 황해(서해)의 한중간 잠정 초치수역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대형 부표를 설치 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과의 협의 없이 축구장크기의 인공어장 시설을 설치해서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박현주, 『중앙일보』, 25.4.23.).

## 우리에게 주는 함의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측면에서 인도-태평양 해양의 자유롭고 안전한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한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즉,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든 자유로운 해양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막는 것을 반대한다. 제주 해군기동함대는 이러한 한국의 사활적 국가 이익의 산물이며, 실체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제주 해군기동함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의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로는 본 해역에서 한미 해군력의 연합 현시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즉, 미국해군은 한국해군과 연합하여 제주해역에서 더 빈번한 현시활동이 필요하다. 평시에

이러한 현시의 증가는 재래식 억제력 유지에 도움이 되며, 위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위기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동일목표를 추구하는 우방국들의 참여 또한 확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제주해군기지는 이러한 동맹 및 우방국 해군들에게 필요한 군수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미국은 역할 분담차원에서 본 해역에서 한국이 주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해역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수행은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군사적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안보, 외교적으로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NATO 등 우방국들에게 국방비 증가 등 안보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해역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미국은 기타 인태지역 해역에서 자국의 제한된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제주 해군기동함대의 능력 신장 측면이다. 미국은 제주 해군기동함대의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동함대는 독도급 대형상륙함, 이지스급 구축함, 디젤 잠수함, 그리고 군수지원함이 주력인데 가장 필요한 전력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의 제한된 능력을 극복할 수 있고, 수중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위협을 극복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 기동함대에 배치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의 해양질서를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 달성에도 기여 할 것이다.

※ 본고는 Park, NAMTAE (Joshua). “South Korea’s New Naval Base Throws a Jab, But Should Train for a Haymaker” *War on the Rocks*. July 17, 2025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 Reference

1. Eunhyuk Cha, “ROK Navy takes another step toward blue-water navy”, *Naval News*. 2025.2.14.
2. 『解放军报』, 韩国成立机动舰队司令部, 2025.2.14
3. 『青年参考』, 韩国海军“押宝”济州岛, 2012年08月29日18版.
4. Park, NT. “China Pushes for Maritime Preeminence in the Yellow Sea.” *China Brief*. 2022.7.29.
5. 박현주. “한·중 서해구조물 ‘담판’...”어업시설” 주장 공략할 창은“ 『중앙일보』, 2025.04.23.

**박남태**는 1993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수상함 장교로 임관, 2007년 미국 Texas A&M대학에서 국제관계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1년 대령 예편 후에 현재는 미국 워싱턴 DC 근교의 George Mason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협력 등 한미 방산협력, 미중 경쟁, 중국과 북한 안보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National Interest, China Brief, War on the Rocks 등에 논문을 기고하고 있다.(pnt914@gmail.com)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